

II. 제9차 UNSIAP집행위원회 참가 결과

1. ESCAP 통계위원회 및 SIAP 현황

가. ESCAP 통계위원회

- ESCAP은 8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, 이 중 하나가 통계위원회임(8개 위원회 : 거시경제정책, 빈곤감소/소외정책, 무역/투자, 교통, 환경/개발, ICT, 재해요인 예방, 사회개발, 통계)
- 통계위원회에서 한국의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될 뿐만 아니라, 2011년 12월 ~ 2014년 12월 간 Bureau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

나. SIAP

- SIAP는 아/태 지역 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며, 1995년에는 ESCAP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어 UN Flag-ship을 가지고 있음
- 이사국은 매3년마다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, 2013~2015년 간 이사국은 한국, 일본(당연직, 부의장), 중국, 인도네시아(의장), 인도, 태국, 필리핀(신규 선출), 호주, 러시아(신규 선출) 등 9개국임
- 직원 수는 소장, 부소장, 강사 2명, 지원인력 3명 등 7명임
한편, 일본 정부에서도 10명의 직원(4명은 임시직)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음. SIAP에서의 근무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
- 연간 예산은 현물 제외 연간 약 20억 원을 상회

자금 출처	금액	비고
일본 정부	US \$ 1,649,700	현물 제외
ESCAP 회원국	US \$ 306,887	한국 50,000 달러
UNFPA	US \$ 215,299	인구센서스 훈련 사업
FAO	US \$ 746,426	FAO의 특별 훈련 사업

2. 집행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

가. SIAP 재정분담 관련

- 회원국 최소 분담금은 5,000달러가 되며, 매년 5% 이상 증액하도록 권고

나. SIAP의 업무 실적 관련

- SIAP가 공인 강사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, 착수하게 된다면 농업통계 분야부터 시작하되 추진일정을 만들어 진행토록 함
- SIAP에서는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e-learn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, 이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요청
- 일본국제협력단(JICA)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교육 수요조사에 각 국에서는 적극 회신해 줄 것을 요망(한국 등 선진국에는 조사표를 보내지 않고 있음)
- 한국 통계청이 SIAP와 공동으로 2013년도에 3회 개최한 훈련과정에 감사를 표시함(2014년에는 2회 개최 예정)
- 전반적으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평가

다. 그 밖의 논의 내용

- 회원국 자비 부담으로 SIAP에 전문 강사 파견을 요망
-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빅 데이터 분석과정 개설 요청이 있었으나, 과정 개설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결론.
- 필리핀 통계 연구/교육 센터는 희망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과정 개설 등 그 기능이 강화될 것임

- 사모아 참가 대표는 집행위원회 멤버로 사모아를 포함하여 줄 것을 희망
→ 집행위원회 멤버는 ESCAP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바,
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
-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2012년에 통계교육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장함.
이에 도움을 준 한국 통계청에 감사의 뜻을 표명
- 인도네시아도 통계교육센터에 국제통계훈련센터를 설립한 바 많이
이용해 줄 것을 희망
- SIAP에서는 자비로 SIAP교육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
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라. 차기 집행위원회 개최 일정

- SIAP가 작성 중인 중기발전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집행위원회를
2014년도 7월에 개최기로 함(9개국 중 5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효력발생)
- 제10차 SIAP 집행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
ESCAP 통계위원회와 연계되어 개최될 것임

III. 제11차 통계기관장 관리세미나 참가 결과

1. 논의 Agenda

- MDG(새천년개발목표)가 2015년도에는 끝나는 바, Post-2015 Development Agenda를 설정함에 아·태지역 통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?
- 데이터 혁명이란 무엇인가?
 - 공공데이터의 개방, 비전통적인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(예: 재해 통계), 빅 데이터 등
- UN에서 발간한 2013년 행복보고서
- 통계청에서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되는가?
아니면 경제/사회/환경/빈곤감소 영역에서의 정책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?

2. 제11차 관리자 세미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

가. Post-2015 개발 Agenda 설정

- UN 통계위원회와 5개의 지역 통계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, 이를 통해 통계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함이 강조
- 경제/사회 분야의 통계개발도 중요하지만, 환경 분야에서의 통계개발과 함께 통계시스템 거버넌스 분야의 발전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

나. 데이터 혁명이란?

- 데이터 혁명이란 통계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마인드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의 공개도 점차 이용하기 쉽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정의할 수 있음
- 각국 통계청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장기업무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- 빅 데이터를 이용한 공식통계의 생산은 통계의 대표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으나, 이 분야 발전에 관한 계속적인 관심과 관련 전문가 간 대화 및 시험적 연구는 필요
- 비전통적인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(예: 재해 통계)과 관련하여서는 빅 데이터 문제와 마찬가지로 ‘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’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, 관련 전문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

다. 행복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?

- UN 통계국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갤럽의 여론조사(Gallup World Poll) 결과, 유럽가치관조사(EVS) 결과 및 유럽사회통계조사(ESS) 결과를 활용하여 2013 행복보고서를 작성
- 이에 대해 일본 및 부탄 참가대표 등은 각국마다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고 국제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, 국제비교를 해서는 안 됨을 강조
- UN 통계국 참가대표는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여 지수를 만들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, 비교 순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

라. 통계청에서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되는가?

아니면 경제/사회/환경/빈곤감소 영역에서의 정책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?

-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

입장	Yes (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)	No (통계 개발 보다는 각종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)
통계 생산자 입장		
통계 이용자 입장		
의사결정 및 자원 제공 입장		

- 이에 대해 찬반 토론이 있었으나,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자체적으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

IV. 제1차 통계시스템 현대화 SAB-AP 미팅 내용

1. 회의 개요

- 회의성격 : 아태 지역의 각국 통계청 간 통계 작성/배포/공유/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호주 통계청장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체
- 일시/장소 : 2013년 11월 22일(금) 12:15~14:00, 인근 식당
- 참석자 : 호주 통계청장(의장), ESCAP 통계국장/통계과장/주무관, SIAP부소장, 한국/베트남/말레이시아/사모아 대표 등 10명

2. 주요 논의 내용

- 2개의 실무작업단(Working Group)을 만들기로 합의
 - i) Working Group on Standards
→ 이 WG는 기존의 SDMX 실무 작업단을 포함하기로 함
 - ii) Working Group on Statistics Production
- 각국의 통계청에서는 이 실무작업단이 성공리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, 적합한 전문가의 추천과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망. 이에 대한 요청은 ESCAP 통계국이 진행할 것임
- SAB-AP와 실무작업단 간의 관계는, SAP-AP는 추진방향의 설정 등을 하고, 실무작업단은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
실무작업단은 업무 추진결과를 SAB-AP에다 연 1회 보고해야 함
실무작업단은 반드시 대면 회의를 할 필요는 없고 e-mail이나 Tele-conference로 진행해도 무방
- 2014년 2월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통계위원회 때, ESCAP 통계위원회 Bureau 멤버(한국 통계청장은 부의장) 및 High-level Group 멤버 간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임
- SAB-AP에의 한국 통계청 멤버는 현재 안정임 통계정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
V. 정책적 함의

1. SIAP 관련

-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50,000달러를 분담하고 있으나, 호주100,000달러 및 중국60,000달러를 감안할 때,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- 제12차 관리자세미나의 한국 개최 가능여부 검토 필요
- SIAP 강의에 국내 강사 장기 및 단기 파견 방안 검토 필요

2.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 확대를 통한 國格 향상

- 한국 통계청이 잘 하고 있는 분야(예: KOSIS, 나라통계시스템, 통계 교육 등)에 대해 캄보디아, 스리랑카, 미얀마, 부탄, 동 티모르, 네팔 등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, 기술이전 및 인력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3. 아/태 지역 내에서 통계 리더십 발휘 및 영향력 증대

- ESCAP 통계국장 및 호주 통계청장 등은 한국 통계청장이 ESCAP 통계위원회의 Bureau 부의장 및 High-level Group 멤버일 뿐만 아니라 한국 통계청의 발전된 상황을 감안할 때, 아/태 지역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희망함

4. 한국 통계교육원 국제적인 통계교육 기능 강화

-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인도, 중국 통계교육기관의 경우 모두 국제통계훈련센터를 설치하였고, 기 기능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, 한국 통계청 통계교육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통계훈련에 대한 기능 정립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

[부록 1] ESCAP 통계위원회 Bureau 의장단

Officer Bearer	Member State	Name and Title
Chairperson	Philippines	 <p>Ms Carmelita Ericta, Administrator and Civil Registration General, National Statistics Office, Philippines</p>
Vice-Chairperson	Mongolia	 <p>Mr Gerelt-Od Ganbaatar, Senior Vice Chairman,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</p>
	Republic of Korea	 <p>Mr Park Hyung-soon, Commissioner, Statistics Korea, Republic of Korea</p>
	Samoa	 <p>Mr Sefuiva Reupena Muagututi'a, Government Statistician, Samoa Bureau of Statistics</p>
Rapporteur	Maldives	 <p>Ms Aishath Shahuda, Deputy Executive Director,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</p>
	New Zealand	 <p>Ms Dallas Welch, Acting Government Statistician, Statistics New Zealand</p>

[부록 2] 통계로 보는 일본

- 일본에의 전체 방문자 중 한국인 수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1989년 이후 2012년 까지 가장 많았음 (1998년 제외)
2013년 10월의 경우 일본에의 전체 방문자 929,000명 중 대만이 213,500명으로 가장 많고, 한국은 158,000명으로 두 번째로 나타남
- 일본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한국의 2~3배 높은 것으로 사료
택시 기본요금 710엔, 담배 1갑 400엔~440엔, 영자 신문 1부 150엔~200엔, 대중 음식점에서의 점심 값 1,000엔, 전기 요금은 한국의 약 3배, 법인세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것 등을 감안해 보면 일본 물가수준은 한국의 2~3배 높을 것으로 분석됨
- 1965년 대일 청구권 경제협력 금액은 무상 자금 3억 달러, 장기저리 엔 차관 2억 달러로서 당시 일본의 일반회계 기준 예산 3조 6580억 엔의 약 5% 규모로 보도. 이 규모는 당시 한국 예산의 약 2년분에 해당